

러시아, 나토 턱밑까지 폭격...“푸틴의 경고 메시지”

폴란드 인근 야보리우 기지 초토화 전쟁 뒤 해외 용병 캠프로 활용

우크라 “이번 공격으로 35명 사망”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서부 야보리우에 있는 훈련장과 군사시설에 대규모 포격을 감행한 것이 서방에 보낸 경고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우크라이나군 당국에 따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8일째인 13일(현지시간) 새벽 러시아군은 야보리우 기지에 수십 발의 순항 미사일을 퍼부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공격으로 35명이 사망하고 134명이 다쳤다고 발표했다. 단일 공격으로는 상당히 큰 인명피해다. 이곳은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의 국경선에서 불과 25km 거리다.

야보리우 기지에 대해 서방·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관점은 미묘하게 다르다.

서방 언론은 집중 폭격이 이뤄진 곳이 야보리우의 국제평화유지·안보센터(IPSC)라고 보도했으나 러시아는 ‘용병 캠프’라고 반박했다.

이 시설은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강제 합병하자 미군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군은 러시아군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크라이나군과의 합동 훈련 시설로 활용했다.

러시아군의 침공이 임박했던 지난해 초까지도 운영됐으며 최근 유럽 내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된 미 플로리다주 방위군도 이곳에 있었다. 뉴욕타임스(NYT)는 IPSC가 미국과 영국, 캐나다, 폴란드, 스웨덴, 덴마크군이 ‘동일군 작전’이라 불리는 프로젝트에 따라 3만5000명의 우크라이나군을 훈련

한 곳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임박하자 서방은 서둘러 군을 철수시켰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13일 ABC 방송에 출연해 이번 공격으로 미군 병사가 사망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나토군 관계자도 피폭 당시 IPSC에 나토군 병력이 없었다고 워싱턴포스트(WP)에 전했다.

대신 IPSC는 해외에서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참전한 수천 명의 ‘의용군’ 병력이 훈련하는 캠프로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

날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는 이 시설에 외국 용병 훈련소를 설치한 뒤 용병을 교전 지역으로 보냈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무기와 장비들을 위한 저장고도 배치했다”며 “이번 공격으로 용병 180명을 제거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종합해보면 최근까지도 나토·미군 병력이 IPSC를 이용한 것은 사실이고 러시아가 오랫동안 이를 주목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방은 현재 이곳에 있는 외국인을 참전을 자원한 의용군으로 보지만, 러시아는 돈을 받고 전투에 나서는 용병으로 여긴다는 점이 다르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중심부로 이어지는 야보리우를 공격한 것에 대해 영국 일간 가디언 등은 러시아가 서방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과 같다고 분석했다. 폴란드 국경에서 차로 30분 거리인 야보리우는 서방의 무기가 도착하는 폴란드 제슈프 공항과 우크라이나 서부 도시 르비우를 잇는 경로에 있다.

세르게이 라브코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은 전날 러시아 국영 채널 1 TV에 출연해 서방의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전달하기 위한 수송 행렬은 러시아군의 합법적인 공격 표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13일(현지시간) 러시아군의 공격을 받은 우크라이나 서부 르비우주(州) 야보리우 군사기지 내 건물과 차량들이 파괴된 가운데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다. 이날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르비우주 스타리치 지역의 우크라이나군 교육센터와 야보리우 훈련장을 공습해 외국에서 온 용병 180명을 제거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홍콩 코로나 누적 사망자 3993명...중 우한보다 많아

홍콩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2년 전 코로나19가 처음으로 창궐한 중국 우한보다 많이 발생했다.

14일 홍콩 영문일간 더스탠더드에 따르면 13일 까지 홍콩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3993명으로, 2020년 초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사망자 3869명보다 많다. 앞서 우한 당국은 코로나19가 발병하자 2020년 1월 23일부터 76일간 도시를 봉쇄하고 점령병 통제를 나섰다. 인구 1100만명의 우한에서는 중국 당국의 공식 통계상 당시 코로나19로 5만명 이상이 확진되고 3869명이 사망했다.

다만 중국 당국의 은폐 속 실제 사망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인구 740만명인 홍콩은 13일까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70만6000여명으로 집계됐다. 고령층의 백신 접종률이 낮은 상황에서 코로나19 사망률은 세계 최고 수준인 0.54%다. 홍콩에서 백신 미접종자의 사망률은 백신 2차 이상 접종자의 사망률보다 23배 높다고 신문은 전했다. 13일에만 264명의 사망자가 보고됐다. 그 가운데 집계 지연을 제외한 24시간 이내 사망자는 190명으로, 이 중 124명이 백신을 한차례도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니켈시장 위기 촉발 중기업 글로벌 은행들과 협상

중국 칭산(青山)그룹의 대규모 공매도로 세계 니켈 시장의 혼란이 심화하면서 JP모건체이스 등 글로벌 대형 은행들이 해결을 위해 나섰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은 이 사안을 잘 아는 사람들의 말을 인용해 JP모건체이스와 스탠다드차타드, BNP파리바 등 채권은행들이 이번 사태의 중심인 칭산그룹과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채권은행들은 신용한도를 연장해 칭산그룹이 증거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중국과 인도네시아에 있는 칭산그룹의 철과 니켈 자산을 대물 담보로 잡는 방안도 대안 이야기도 나온다고 WSJ은 전했다.

WSJ은 사상 최고 수준인 현재 가격과 칭산그룹의 방대한 니켈 생산 능력을 감안하면 신용한도 연장이 채권은행들에 상당한 수익을 안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로이터통신은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어려움에 빠진 칭산그룹 구하기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칭산그룹이 런던금융거래소(LME) 품질 기준을 맞출 수 있도록 중국 정부가 보유한 고급 니켈과 칭산그룹이 생산하는 니켈선철(NPI)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말했다.

앞서 니켈 가격은 지난 8일 LME에서 장중 한때 111% 급등해 역대 최고가인 1t당 10만1365달러까지 치솟았다. 니켈 가격은 올해 들어서만 400% 넘게 폭등했다. /연합뉴스

아폴로 17호가 가져온 월석 시료 밀봉 보관 50년만에 ‘봉인’ 해제

NASA 토양·암석 시료 분석

아폴로 17호가 달에서 가져온 암석·토양 시료의 ‘봉인’이 50년 만에 풀렸다.

이 시료는 달에서 가져온 2천196개의 월석·토양 시료 중 밀봉 상태로 보관해온 두 개 중 하나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AFP통신에 따르면 ‘아폴로 차세대 시료분석 프로그램’(ANGSA) 과학자들이 휴스턴의 존슨 우주센터에서 ‘시료 73001’에 대한 밀봉 해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시료는 마지막 달 착륙선인 아폴로17호 우주비행사 유진 서넬과 해리스 슈미트가 1972년 12월 ‘맑음의 바다’(Mare Serenitatis) 내 타우루스-리트로우 계곡의 사데 지역에서 파이틀 속으로 박아 채취한 것이다. NASA는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 1970년대 당시에는 가능하지 않았던 분석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진공 상태로 밀봉된 시료를 보관해 왔으며 달 복귀 계획인 ‘아르테미스(Artemis) 프로그램’을 앞두고 밀봉을 해제했다.

현재 진공 상태로 곁을 싸고있던 보호관을 제거한 뒤 시료관에 구멍을 뚫고 가스를 채취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극저온에서 채취된 시료 73001 안에는 얼음이나 이산화탄소 등처럼 상온에서 증발하는 휘발성 물질(가스)이 들어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런 가스는 극히 소량일 가능성이 높지만 최근 몇 년간 급속히 발전해온 질량 분석 기술을 활용해 정확히 종류를 가려낼 수 있다고 NASA는 밝혔다.

진공 보관 안에서는 달의 가스가 검출되지 않았는데 이는 시료관의 밀봉 상태가 손상되지 않았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으로 설명됐다. 과학자들은 가스 추출이 완료된 뒤 시료관 안의 토양 및 암석 시료를 꺼내 분석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중국, 인터넷 기업 통제 강화...“콘텐츠 정화”

주요 플랫폼 관계자 소집 점검·직원 교육 등주문

중국 당국이 올해에는 인터넷 기술기업들에 대한 개입과 통제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인터넷 당국인 국가사이버정보공실(CAC)은 올해 온라인 콘텐츠 정화운동을 계속하고 관련 인터넷 기술기업에 대한 개입과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성통화(盛通華) 국가사이버정보공실 부주임(차관)은 지난 10일 통지문을 통해 이런 뜻을 밝히고, 지난해 인터넷 플랫폼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결과 인터넷상의 무질서한 팬클럽 활동, 가짜 뉴스 등이 대폭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 중국 인터넷 당국의 이런 입장 발표는 성 부주임이 지난 9일 ‘중국판 트위터’로 불리는 웨이보(微博)의 본사를 방문해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콰이쇼우를 비롯한 거대 인터넷 기업 관계자들을 면담한 직후 나왔다.

CAC는 이 자리에서 중국의 거대 인터넷 플

랫폼들에 대해 강력한 콘텐츠 점검을 만들고 직원들에 대한 관련 교육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CAC는 거대 인터넷 플랫폼들에 대해 ‘사이버 문명 건설’을 위한 지침을 준수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들은 지난해 9월 내부적으로 ‘사이버 문명 건설’에 관한 지침을 내리고, 사이버 공간에서 애국심과 당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하는 ‘홍색 정풍운동’에 돌입한 바 있다.

이 지침에는 “인터넷 플랫폼이 사회주의 핵심 가치에 맞는 윤리와 규율을 함양하고, 사이버공간에서의 행동규범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거대 인터넷 기술기업들의 여론에 대한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한 ‘인터넷 정보 서비스 알고리즘 추천 관리 규정’(이하 알고리즘 규정)도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CAC 주도로 마련된 알고리즘 규정은 알고리즘을 활용해 이용자들에게 콘텐츠를 추천하는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해 ‘공정적인 에너지 촉진’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

<h2>장성 토지(매매 분양)</h2>	<h2>상가매매(상무지구)</h2>	<h2>경매교육 [특수전문반]</h2> <p>기초반,중급반</p>
	<p>중심상업지역 6층, 7층 (총분양 140평) 시세 -> 9억 급매가 -> 6억 (보 3천, 월 350만, 용 3억5천) (사무실 리모델링함,빠,유휴,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수반모집 -> 유치권, 법지, 지분, NPL(전문) 전문반모집 -> 직업으로 하실분 (경매배우면서 수익가능) 기초반, 중급반, 특수반 => 평생 회원반
<p>광주에서 20분(6M도로접), 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 총 1760평 (150평, 200평, 500평, 분할가능) [전원주택,물류창고,주말농장,별장,투자적합]</p>	<p>광주 남구 행암동(임야)▶ 감정가 97억 -> 54억 (2/23) 서구 화정동(주택)▶ 감정가 3억7천 -> 3억 (2/23) 북구 일곡동(근린주택)▶ 감정가 6억1천 -> 4억8천 (2/23) 북구 본촌동(근린시설)▶ 감정가 15억 -> 11억 (3/2) 광산구 소촌동(농지)▶ 감정가 4억4천 -> 3억1천 (3/3) 서구 화정동(주택)▶ 감정가 2억5천 -> 1억7천 (3/4) 광산구 삼거동(임야)▶ 감정가 3억9천 -> 1억7천(3/15)</p> <p>전남 진도군 진도읍(근린시설)▶ 감정가32억 -> 18억 (2/21) 목포시 옥암동(근린시설)▶ 감정가 25억 -> 11억 (2/28) 나주시 금천면(주택)▶ 감정가 4억1천 -> 2억9천 (3/15) 나주시 다도면(주택)▶ 감정가 9억9천 -> 5억5천 (3/15)</p> <p>시외 당진시 송산면(다가구원룸)▶ 감정가 4억8천 -> 8천 (2/15) 서울특별시 중랑구(근린주택)▶ 감정가 17억 -> 8억8천(3/2)</p>	
<h1>010-6670-9800</h1>		